



미국, 지난 20년간 초산월령 빨라지고 분만간격 길어져

지난 20년간 미국 젖소들은 초산월령이 빨라지고 분만 간격은 길어졌으며 도태월령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농무성 가축개량육종실험실이 지난 1979년 이래 미국내 젖소검정사업에 참여한 2천만건 이상의 검정기록을 분석한 결과 홀스타인 젖소는 초산월령이 지난 '80년에 27.9개월령에서 '04년에는 25.6개월령으로 단축되었으며, 초산우의 분만간격은 394.2일에서 415.2일로 늘어났고, 전체 검정참여우의 평균 분만월령은 51.8개월령에서 44.6개월령으로 도태월령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종별로는 저지종이 초산월령이 가장 빨라 '80년 26.5개월령에서 '04년 24.1개월령으로 줄어들었으며 분만간격도 종전 385.9일에서 398.5일로 비교적 번식간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ard's Dairyman)

영국, 대형 할인점 우유가격 경쟁 치열

영국내 최대 대형 유통할인점중 하나인 ASDA가 우유 소비자 가격을 파인트당 5.5펜스 추가인하하면서도 낙농가들에게는 리터당 0.5펜스를 더 지불하여 치열한 우유가격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유통체를 통하지 않고 낙농가들에게 직접우유를 구매하고 있는 ASDA사가 어떻게 비용절감을 하는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테스코나 세인스베리사와 같은 영국내 다른 대형할인점들도 우유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유통체들보다 1펜스가 많은 1리터당 19.4펜스를 받고 있는 ASDA 납유 농가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다른 대형할인점들도 동일 수준의 유대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ily record.co.uk)

멕시코, 미국 유제품 수입에 30% 긴급관세 부과

멕시코 경제성은 최근 자국내 일부 지역의 우유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해 30%의 긴급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에는 잉여유가 해결될 때까지 민간업체의 수입 유제품 쿼타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멕시코 농무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정후 관세가 철폐되면서 잘리스코주등 일부 지역에서 자국산 우유 판매가 줄어들어 1주일에 150만리터의 잉여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따라 민간 유통업체들은 멕시코산 잉여유 1백만 리터를 추가 구매 활용하기로 결정하여 잉여유 사태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ww.cattlenetwork.com)

일본, 중앙낙농회의 의회 우유수급 지원요청

일본의 우유수급지원을 총괄하는 협동조합 연합체인 중앙낙농회의는 '06년도 축산물 가격·관련 대책을 심의중인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본격적인 지원을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우유수급제도의 근간인 가공 원료유의 한도 수량에 대해서는 최근 원유수급을 감안 우유생산 기반유지, 생산자 단체에 의한 수급 대책의 배려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가공 원료유의 생산자 보급금 단가도 현행 유지를 기본으로 적절히 결정해 현재 지원농가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원유 수급 대책으로는 액상 유제품이나 발효유, 치즈전용의 원유 공급을 장려하는 사업과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겨울철 생산 억제를 지원하는 대책을 계속 실시하는 것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교섭시 탈자분유, 버터의 관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국경조치 견지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농업신문)